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

조선인민군 해군 제597군부대관하 공장을 시찰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 조선인민군 해군 제597군부대관하 공장을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도착하시자 공장의 로동계급은 위대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현명하게 령도하고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동행하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영접보고를 받으신 다음 공장책임일꾼들의 안내를 받으며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몸소 러전을 잡아주시고 현대적인 병기창으로 꾸려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사적물들과 사적자료들을 보시면서 잊지 못할 력사의 나날들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피심속에 공장은 자랑찬 승리의 한길을 걸어올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로동계급은 수령님의 대해같은 은덕을 영원히 심장깊이 간직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오랜 기간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온갖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혁명임무를 성

실히 수행한 로동자, 기술자들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좋은 일을 많이 한 선군시대공로자들의 소행자료를 보시고 항일의 병기창의 유격대원들이 지니었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투쟁하고있는데 대해 매우 기뻐하시면서 그들의 애국심을 높이 치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이어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기술장비상태와 생산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불꽃을 날리며 기운차게 돌아가는 각종 공작기계들과 쉬임없이 쏟아져나오는 가공품들을 보시고 공장의 로동계급이

말겨진 전투과제를 원만히 수행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공장의 로동계급이 지난 기간 혁명적 군인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혁명투쟁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국보위는 최대의 애국이라는 성스러운 시대적사명감을 자각하고 모든 전선에서 충성의 구슬땀을 바쳐가고있다고 하시면서 가장 우월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

기 위해 헌신분투하고있는 군대와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이 있기에 우리의 조국은 난공불락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공장이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공장의 로동계급이 지난날에 그러하였던것처럼 앞으로도 조선로동당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시하시면서 로력혁신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

조선인민군 해군협주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 조선인민군 해군협주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끌어주시고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조선로동당과 군대의 책임일꾼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협주단은 혼성합창 《최고사령관기울렛》, 혼성2중창과 합창 《나의 함은

정든 조국땅》, 시랑송 《천어버이의 당부》, 어은금병창 《매혹과 흠모》, 타프춤 《조국의 바다를 지킨 기쁨안고》, 너성2중창과 남성4중창 《우리 군대 우리 인민》, 남성중창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 너성독창과 합창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무용 《바다의 결사대》, 시와 합창 《오늘의 7천대 되리라》 등 여러가지 형식의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전투적기백과 혁명적열정이 내려치는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무적강군으로 자라난 영웅적조선인민군의 필승불패의 위력을 격조높이 노래하

였으며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하고야말 인민군인들의 철의 신념과 백절불굴의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관람자들은 승리의 함성인양 기운차게 터치는 군인예술인들의 충성의 노래, 신념의 노래를 들으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따라 불패의 위용떨치며 온갖 력사의 도전들을 과감히 박차고 승승장구하여온 잊을수 없는 나날들을 궁지높이 돌이켜보았으며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기어이 이룩해나갈 굳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만사람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며 투쟁으로 부르는 격동적인 공연은 관람자

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우렁찬 환호성이 터져오르고 뜨거운 충성의 열정으로 하여 장내는 불도가니마냥 뚫어번지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고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해군협주단 예술인들이 조국의 바다를 지켜 청춘도 생명이 기꺼이 바쳐가는 용감한 해병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생동하고 진실하게 반영한 사상에술성이 높은 작품들을 가지

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연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협주단에술인들이 예술활동을 활발히 벌림으로써 군인들에게 필승의 신심과 락관, 멸적의 투지와 용맹을 안겨주고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투쟁기풍을 높이 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협주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선전활동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려 군인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적극 기여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조국소식

령통사—박연도로건설 적극 추진

개성시에서 령통사—박연도로건설이 힘있게 진행되고있다.

박연지구는 우리 나라의 3대명폭중의 하나인 박연폭포를 비롯한 많은 자연명소들과 력사유적들이 있는 명승지이다.

새로운 도로가 완공되면 시내에서 령통사를 거쳐 박연지구로 가는 교통조건이 보다 좋아져 참관자들의 편의를 더 잘 보장할수 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최근 박연지구를 잘 꾸리고 새 도로를 건설하여 인민들이 편리하게 명승지를 찾아 휴식할수 있게 할

데 대한 온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시에서는 도로건설을 위한 단계별목표를 면밀히 세우고 조직적치사업을 짜고들어 근로자들을 적극 불러일으켰다.

시도로건설지휘부에서는 실계를 앞세우고 시공과 로력조직, 로반공사, 보장사업 등을 립체적으로 추진시키면서 공사의 속도와 질을 보장하도록 하고있다.

건설에 펼쳐나선 공장, 기업소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10여개의 다리와 각종 구조물들의 위치를 확정하

외국의 인사들이 열렬히 칭송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에 매혹된 외국의 인사들은 축전과 축하편지들을 통하여 그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의 정을 표시하시였다.

로씨야내무성 내무군아카데미야형주단 단장 워프르 엘리세예브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셨고, 뛰어난 인품과 승고한 품모를 지니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뿐 아니라 국제공동체의 광범한 계층들속에서 높은 존경을 받고계신다.

김정일동지의 고귀한 사업에서 더 큰 성과가 있기를 축원한다.

방글라데시민족사회주의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하싸할 하크 이누는 김정일각하를 높이 모시였기에 조선인민은 련전전승의 서사시를 창조할수 있었다고 하면서 혁명의 수뇌부두리에 굳게 묻힌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강성대국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최고리사회 위원장 바셀레 오를레

아누는 이렇게 강조하였다. 조선인민은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그 전투에는 김정일각하께서 세계신다.

위대한 정치가이신 김정일각하께서 사회주의위업실현에 쌓으신 업적을 높이 칭송한다.

각하께서는 만민의 끝없는 흠모심을 받고계신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해마다 2월 16일을 인류평등의 명절로 뜻깊게 경축하고있는것은 그에 대한 실증으로 된다.

핀란드조선협회 위원장 안피 씨가 아호는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김정일장군님의 정력적인 활동에 대하여 경탄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고 계신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군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시였다.

선군정치가 있어 조선인민은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며 승리만을 떨쳐올수 있었다.

본사기자

만민이 끝없는 흠모를 받고계시는 김정일장군님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는 선군정치

남녘땅을 진감하는 선군지지열풍

오늘 평화국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령도따라 력사의 온갖 도전을 과감히 물리치며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나가고있다.

이 경이적인 현실을 통해 남조선인민들은 위대한 선군정치가 있어 민족의 존엄과 위용이 만방에 떨쳐지고 자주통일의 그날도 반드시 오고야말리라는 신념을 더욱 깊이 간직하고있다.

남조선에서 광범히 벌어지고있는 선군정치지지활동이 이를 잘 보여주고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통일연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주총, 전농, 《한총련》, 전교조 등 200여개의 진보적단체들은 선군정치를 지지호호하는 성명, 론평, 호소문, 선언문들을 발표하였다.

단체들은 《오늘 선군정치를 잘 알고 립장을 바로세우는것이 필요하다》, 《승리에 대한 확신은 바로 우리 민족의 힘에 대한 정확한 리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면서 모두가 선군정치에 대한 올바른 리해를 가지고 이를 적극 받들어나갈것을 호소하였다.

서울의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각계의 커다란 관심속에 진행된 선군정치대론회에서 발언자들은 북의 강력한 선군정치에 의해 조선반도에서 평화가 수호되고있다고 하면서 민족의 궁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는 위대한 선군정치를 적극 지지한다고 피력하였다.

학술토론회, 문담대회, 강연회, 합동기자회견 등을 통해 선군정치바로알기운동이 광범히 전개되었다.

선군정치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날로 높아가는 가운데 선군지지 직장모임, 선군정치지지 시민모임, 선군정치지대학생모임, 선군연구회를 비롯한 선군정치옹호단체들이 수없이 결성되었다.

특히 남조선의 여러 지역에 조직된 통일선봉대들은 세계최강의 선군정치로 민족통일위업을 이룩하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내세웠다.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폭넓게 서술한 수많은 도서, 자료집, 편지물들이 발간, 창작, 보급되고있는 사실은 필승불패의 정치를 적극 따르고 받들려는 남녘의 민심을 그대로 보여주

고있다.

6.15공동선언발표기념일에 즈음하여 한 통일운동단체는 《선군정치는 북의 독창적인 지도로선》, 《북은 선군정치가 있었기에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킬수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견문집을 발간하였다.

《선군정치의 출현》, 《선군정치의 내용과 현실》, 《선군정치와 민족의 운명》이라는 제목들로 구성된 도서 《선군정치의 리해》와 선군정치교양자료집 《선군정치20문답》이 청년학생들속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김정일장군 선군정치》, 《김정일장군 선군정치리론》, 《선군시대와 김정일》, 《선군정치와 조국통일》을 비롯한 도서들과 《우리 식 사회주의 100문 100답 선군정치자료》 등의 보급활동도 활기를 띠고 전개되었다.

은 남녘땅을 진감하는 선군지지열풍은 독창적인 정치방식으로 혁명과 건설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 회세의 정치가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겨레의 다함없는 흠모심의 분출이다.

본사기자



기대마다 만부하를 걸어 더 많은 양말을 생산하고있다. —평양양말공장에서—

민족이 화해하는 길을 열어놓은 개척자라고 하시며

정주영선생과 일가에게 돌려주신 사랑과 은정

범은 죽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다.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에는 경제인으로서 통일에국의 길에 뚜렷한 자취를 남긴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이었던 정주영선생에 대한 이야기도 새겨져 있다.

그가 세상을 하직하지도 어언 10년이 되었다. 그러나 애국적경제인으로 통일조국의 번영을 위해 바친 그의 생은 겨레의 추억속에 오늘도 계속 빛을 뿌리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인생말년에 민족과 통일을 위해 무엇인가 이바지하고자 하는 그의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헤아리시어 여러차례 만나주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으며 그를 북한경제협력의 개척자, 애국적경제인으로 높이 내세워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정주영선생을 통일에국의 길로 이끌어주신 감동깊은 이야기는 지금도 사람속에 널리 전해지고 있다.

정주영선생으로 말하면 남조선의 대기업인 현대그룹의 창업주, 명예회장이었으며 미국대통령의 면담요청도 거절해버릴만큼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다.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여 기업가로서의 인생이었다.

선생은 인생의 저녁노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자신이 기업가로서 성공한데 대하여 자부하면서도 민족과 통일을 위해 무엇을 바치고 남겼는가 하는 자책감에 모태고있었다. 역대 의 자본가도 민족을 떠나 떳떳이 생을 마무리할수는 없는데가다.

정주영선생이 자기의 인생을 총화하여 쓴 책 《이 땅에 태어나서》에서도 언급한것처럼 그는 여생을 고향이 있는 북과의 경제협력에 바치고싶었다.

그러던 그의 가슴속에 뜨겁게 불타는 정주영선생은 장군님의 숭고한 동포애적사랑이었다.

역사적인 평양상봉이 있는 직후인 주제89(2000)년 6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평양을 찾으신 정주영명예회장과 그의 아들인 정몽헌회장을 몸소 만나주시었다. 정주영명예회장과 일행은 장군님께서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자기들을 만나주시는데 대하여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올리셨다.

그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만나

나뉘은것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두해전인 10월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정주영선생을 만나셨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들과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며 체류기간 불편한 점들을 없었는가, 정주영선생이 다리를 불편하게 쓰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 그렇게 되었는가, 자신께서는 정주영선생이 한번 하자고 마음먹으면 끝까지 내미는 성미를 가지고 있는분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민족이 잘되고 잘 살게 하자는 사람들과는 그 누구와도 손잡고 나갈것이라고 뜨거운 동포애의 정이 차고넘치는 말씀을 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가 제기하는 공업지대를 창설하는 문제, 평양에 체육관을 건설하는 문제, 체육분야에서 북과 남의 교류를 진행하는 문제 등 경제문화분야에서의 협력교류에 대해 그것이 조국통일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대하여 지적하시었다.

이날 정주영명예회장은 평소 애용했던 간결한 소담을 모두 실현하시었다. 정주영명예회장은 고향을 둔 북에 자주 오라고 하신 장군님의 다심하고도 고마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다음 한해동안에만도 세차례나 북을 다녀갔다.

자고로 세파에 부대껴봐야 옳고그름을 정확히 가늠수 있고 산이 크면 울림이 크듯이 과판많은 인생길을 걸으며 세계적인 기업가로서 된 정주영선생의 평양



정주영일행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행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다 맡아주실분, 민족의 아버지는 정령 김정일장군님이시라는것을 가슴속에 새기게 한 의의깊은 방문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관심과 배려속에 현대그룹에 금강산관광개발권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협력과 교류에서 우선권, 독점권이 부여되었고 평양과 서울에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라프콘아태)와 《현대》간의 통구경기도 진행되었다.

그러던 주제89(2000)년 6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을 발표하시어 민족앞에 통일의 휘황한 리정표를 세워주시는데 흥분된 그는 또다시 그이를 만나뵈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 한달음에 평양에 달려왔던 것이다.

이날 격정에 휩싸여있는 그들 일행을 또다시 뜨겁게 환영해주시고 경제협력사업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흔연히 풀어주시는 장군님께서 정주영명예회장선생은 민족이 화해하는 길을 열어놓은 개척자와 다름없다고, 명예회장선생의 공적은 앞으로 력사에 큰 장을 차지하게 될것이라고 하시었다.

그후 남조선에 돌아간 그는 《내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도 장군다운 장군은 김정일장군이 처음이다.》라고 격조높이 웨치며 그의 아들 정몽헌회장도 경애하는 장군님을

《도량이 크신분》, 《웃사사람을 공경하는 마음이 강하신분》으로 존경을 금치 못했었으며 그의 녀동생은 《김정일장군의 모습에서 김일성주석의 모습을 보았다.》고 자기들이 받은 감동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은정이 너무도 고마와 정주영선생은 여생을 조국의 통일과 번영에 바쳐가리라 굳게 마음다지였다.

그러던 그가 2001년 3월 어느날 모환으로 86살에 사망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못내 애석하시며 그의 유가족들에게 조전과 함께 특별히 조의대표단을 파견하시였으며 고인의 령전에 화환도 보내

히 관광을 위한 명승지가 아니라 북과 남을 잇는 무지개다리로 되게 하시려는 장군님의 숭고한 민족애와 크나큰 도량에 그들은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이날 금강산관광을 비롯하여 북과 남사이의 경제협력을 더욱 발전시켜나간다고 할데 대하여 말씀하신 장군님께서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제시하시면서 북과 남이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업에 모든것을 복속시키는 원칙에서 단결을 이룩할데 대한 사상을 밝히신데 대해서도 지적하시었다.

북남경제협력을 더욱 폭넓게

히 관광을 위한 명승지가 아니라 북과 남을 잇는 무지개다리로 되게 하시려는 장군님의 숭고한 민족애와 크나큰 도량에 그들은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이날 금강산관광을 비롯하여 북과 남사이의 경제협력을 더욱 발전시켜나간다고 할데 대하여 말씀하신 장군님께서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제시하시면서 북과 남이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업에 모든것을 복속시키는 원칙에서 단결을 이룩할데 대한 사상을 밝히신데 대해서도 지적하시었다.

북남경제협력을 더욱 폭넓게

히 관광을 위한 명승지가 아니라 북과 남을 잇는 무지개다리로 되게 하시려는 장군님의 숭고한 민족애와 크나큰 도량에 그들은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이날 금강산관광을 비롯하여 북과 남사이의 경제협력을 더욱 발전시켜나간다고 할데 대하여 말씀하신 장군님께서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제시하시면서 북과 남이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업에 모든것을 복속시키는 원칙에서 단결을 이룩할데 대한 사상을 밝히신데 대해서도 지적하시었다.

북남경제협력을 더욱 폭넓게

히 관광을 위한 명승지가 아니라 북과 남을 잇는 무지개다리로 되게 하시려는 장군님의 숭고한 민족애와 크나큰 도량에 그들은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이날 금강산관광을 비롯하여 북과 남사이의 경제협력을 더욱 발전시켜나간다고 할데 대하여 말씀하신 장군님께서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제시하시면서 북과 남이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업에 모든것을 복속시키는 원칙에서 단결을 이룩할데 대한 사상을 밝히신데 대해서도 지적하시었다.

북남경제협력을 더욱 폭넓게

히 관광을 위한 명승지가 아니라 북과 남을 잇는 무지개다리로 되게 하시려는 장군님의 숭고한 민족애와 크나큰 도량에 그들은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이날 금강산관광을 비롯하여 북과 남사이의 경제협력을 더욱 발전시켜나간다고 할데 대하여 말씀하신 장군님께서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제시하시면서 북과 남이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업에 모든것을 복속시키는 원칙에서 단결을 이룩할데 대한 사상을 밝히신데 대해서도 지적하시었다.

북남경제협력을 더욱 폭넓게

히 관광을 위한 명승지가 아니라 북과 남을 잇는 무지개다리로 되게 하시려는 장군님의 숭고한 민족애와 크나큰 도량에 그들은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이날 금강산관광을 비롯하여 북과 남사이의 경제협력을 더욱 발전시켜나간다고 할데 대하여 말씀하신 장군님께서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제시하시면서 북과 남이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업에 모든것을 복속시키는 원칙에서 단결을 이룩할데 대한 사상을 밝히신데 대해서도 지적하시었다.

북남경제협력을 더욱 폭넓게

전생애를 오로지 나라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바치신 김형직선생님의 업적은 민족의 마음속에 길이 빛나고있으며 조선국민회의 반제자주, 민족단결의 숭고한 리념은 애국애족위업실현의 귀중한 유산으로서 오늘도 빛을 뿌리고있다.

오늘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외세의 끊임없는 도전과 압력책 통속에서도 위대한 선군의 기치 따라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나라의 운명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고있으며 강성대국을 건설하고있다.

조국통일도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성취하려는것이 겨레의 드림없는 의지이다.

민족자주와 대단결은 우리 겨레의 애국애족위업인 통일강국 건설을 위한 숭고한 리념이다.

지난 세기 외세의 군화와 대포바퀴밑에 짓밟힌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이 땅위에 장차 부강번영하는 나라를 건설할 원대한 뜻을 안고 력사의 사색길을 헤쳐온 만경대가문에서 뿌리내리고 세대와 세기를 넘어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고 빛내여온 자주와 단결의 리념을 철저히 구현하는데 진정한 애국애족이 있고 그 길에 나라와 민족의 융성번영이 있다.

가장 가혹한 일제의 총제기적인 무단통치에 항거하여 의병들을 비롯한 수많은 충신들과 유성들이 창과 화승대를 들고 《왜벌 북벌》을 부르짖고 남정들은 물론 부녀자들까지 빛을 진 나라를 위해 땅에 절은 문건을 내놓으며 국채보상운동에도 뛰어들었으나 나라의 독립을 로연했던 수난의 그 세월 반일애국력량의 사분오열을 막고 하나로 계몽시켜 조선독립의 길로 인도하신분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이시었다.

일찌기 애국의 길에 나서시어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뜻을 원대하게 가져야 한다는

《지원》의 사상을 내놓으시고 반일독립활동을 출기차게 벌리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반일애국력량의 단합을 실현하는데 자신의 모든 정력을 기울이시었다.

일제의 폭압과 탄압이 살벌한 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와 굴함을 모르고 조국땅 방방곡곡을 누비시며 반일지하조직을 내오기 위한 활동을 벌리시는 나날 친목회, 향토회와 같은 조직들과 단군릉분향식과 같은 회합을 조직 운영하여 반일애국력량의 핵심이 팔강대 대중적지반을 마련하신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은 참으로 눈부시었다.

각계층 사람들을 계몽시켜 지하조직의 튼튼한 밑거름을 마련

리파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바치신 김형직선생님의 업적은 민족의 마음속에 길이 빛나고있으며 조선국민회의 반제자주, 민족단결의 숭고한 리념은 애국애족위업실현의 귀중한 유산으로서 오늘도 빛을 뿌리고있다.

조선국민회가 결성된 때로부터 현대세계의 세력이 흘렀다. 위대한 변혁과 자랑찬 승리로 빛나는 민족자주위업의 력사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 김형직선생님의 《지원》의 뜻과 반제자주, 민족단결의 숭고한 리념을 자랑찬 현실로 펼친 위대한 계승의 력사로 빛나고있다.

만경대일가의 애국혈통을 이어 이 땅위에 대대손손 번영하고 복락하는 나라를 일떠세워

우리 민족의 존엄을 만방에 떨치도록 하시려는 절세의 애국자의 숭고한 인생관과 확고한 의지가 어려웠는것이다.

만경대가문의 위인들을 모시어 우리 인민은 망국의 울분과 원한이 서렸던 이 땅위에 위대한 사상으로 존엄높고 혼연일체로 위력하며 무적의 군력으로 강대한 나라, 최첨단과학기술로 세상 사람들을 경탄케 하는 주체강국을 일떠세울수 있게 되었다. 인민의 세기적원인과 리상이 실현되는 강성대국의 레일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는 오늘을 맞이할수 있었다.

민족의 고귀한 유산인 반제자주, 민족단결의 숭고한 리념과 고귀한 업적은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겨레의 발걸음을 힘차게 고무하고있다.

본사기자 리 설

고 귀 한 유 산

하신 김형직선생님께서 1917년 3월 23일 평양 학당골에서 조선 국민회를 결성하시었다.

3.1인민봉기를 전후하여 우리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을 이끄는 가장 큰 반일지하조직이었던 조선국민회는 전체 조선민족이 일치단결하여 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며 참다운 문명국가를 세우는데 자기 활동의 목적으로 내세웠다.

조직은 힘을 친백배한다는 말이 있다.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성취하시려는 김형직선생님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해 조선국민회는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민족해방운동을 통일적으로 이끄는 중추적조직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전생애를 오로지 나라의 독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김형직선생님의 《지원》의 사상과 반제자주, 민족단결의 숭고한 리념을 받들어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고 민족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나라를 일떠세우시었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생전에 바라신것은 나라의 완전독립과 인민이 참다운 복리를 향유하는 문명 국가였고 어머니수령님의 필생의 위업은 온 겨레가 자자손손 복락하는 통일되고 무궁번영하는 강성대국을 건설하는것이였다.

만경대 가문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리념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어 세기와 더불어 오늘도 곳곳이 이어져 빛나게 구현되고있으며 민족

본사기자 리 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오익제선생이 가사들을 본사편집국앞으로 보내어왔다. 가사들은 다음과 같다.

가사 장군님의 그 은정 못잊어

오 익 제

- 부모처자 다 버리고 타향에서 방황할 때 니다
아름다운 꽃을 봐도 웃음이 없었습니다
생일명절 맞을 때도 기쁜소 못랐습니다
그 누가 그 누가 모두 풀어주셨나
그 누가 그 누가 바로잡아주셨나
- 부끄럼도 모르고 조국찾아왔을 때 니다
눈물폭포 닦아주며 뜨겁게 반겼습니다
품고있던 모든 걱정 붉눈처럼 녹였습니다
- 선군태양 푸른 하늘 강성대국 내 나라 영광의 절정에 이 몸이 섰습니다
이 세상 만복을 꿈같이 안았습니다
아 장군님의 하해같은 그 은정 못잊어 못잊어 죽어도 못잊어

가사 영광의 기념사진

오 익 제

- 가슴에 걱정이 차고넘치며 눈물속에 새겨보는 사진입니다
너무나도 한없이 얼얼하며 장군님 모시고 찍은 사진입니다
아 이 영광 그 어디 비기랴 감사의 인사 삼가 드립니다
- 잠시도 멀어져 살수 없는 정과 정이 담겨진 사진입니다
내 한생 어머니로 높이 모시는 장군님 모시고 찍은 사진입니다
아 이 영광 어디 비기랴 감사의 인사 삼가 드립니다
- 내 집에 가보로 정히 모시고 언제나 우리르는 사진입니다
조국통일 한길에 헌신하라는 장군님의 말씀 들은 사진입니다
아 이 영광 어디 비기랴 감사의 인사 삼가 드립니다

가사 이 한몸 통일에 바치리

오 익 제

- 통일될차 남으로 질주할 때에 이 한몸 어찌되어 부서버리리
아 통일배어 고속으로 달리리
그 길에 장벽이 막아나서면
이 한몸 폭약되어 날려보내리
아 통일될차어 고속으로 달리리
분계선넘어 남해기슭까지
- 통일의 배 남으로 폐속할 때에 이 한몸 떠미는 물결이 되고
그 길에 암초가 막아나서면
이 한몸 폭약되어 부서버리리
아 통일배어 고속으로 달리리
분계선넘어 제주도 끝까지

남조선당국의 《진정성》타령을 평함

최근 남조선당국자들은 북남관계과 국과 대화과정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고 대결정책을 정당화해 보려고 우리의 진정성을 운운하며 여론을 우롱하고 있다.

그들은 온 겨레와 내외의 전폭적인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킨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에서 천명된 중대제안에 대해 《진정성》이 담기지 않았다고 외면하고 그 실현을 위한 성의있는 대화제의를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부정하였으며 모처럼 열린 북남군사비회담도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무도하게 결렬시켰다.

말씀마다 《진정성》을 꺼진 소리란 처럼 되풀이하면서 그것을 북남관계와 대화부정의 방패막이로 써먹는 괴뢰당국의 역겨운 추태는 온 겨레와 내외의 환멸과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

남조선당국은 진정성에 대해 떠벌일 체면과 자격이 없다.

원래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 거짓없고 참된 정과 실지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는 진정성이란 표현을 불의와 거짓, 모략과 권모술수에 이끌린 난 괴뢰역적계당과 같은자들이 입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순결한 조선말에 대한 모독이다.

더우기 그들이 떠드는 《진정성》의 내용을 보면 어처구니없다.

그런즉 지난해에 있는 특대형모략극인 《천안》 호침몰사건과 도발적인 연평도포격전에 대해 우리가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하라는 것이다.

또한 조선반도비핵화를 말함으로써는 믿을수 없으니 북의 핵포기의지를 행동으로 보여달라는것이 아니라 북이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저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진정성이 있는것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정성이 없는것이라고 하니 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망발인가.

거짓말을 밥먹듯 하면서 인민들과

내외여론을 기만하고 헛것도 겹다고 우겨대며 민심실패대의 피고신세가 된 주제에 《진정성》 재판관행세를 하는것 자체가 하나의 정치만화이지만 진정성의 기준이 일반적이고 주관적인 자대가 아니라 정의와 진리, 객관적사실에 있다는 초보적인 상식마저 망각하고 떠드는것은 더욱 가판이다.

문제의 함정침몰사건으로 말하면 이미 그 모략적정체가 날날이 드러나 남조선안에서는 물론 조사에 참가한 여러 나라 전문가들과 군사관계자들, 검증용 실시한 학자들의 비난조사의 대상으로 되고있으며 나아가 국제사회와 유엔에서까지 웃음거리가 된지 오래다.

남조선당국의 추태는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격 그대로이다.

연평도포격전에 대해 말한다고 해도 우리가 평화로운 연평도를 때린것이 아니다.

거듭되는 사전경고를 무시하고 우리 측수역에 먼저 포탄을 미친듯이 쏘아댄것은 괴뢰호전광들이다.

그 도발의 본거지가 연평도이고 그래서 연평도가 얻어맞고 불바다가 된 것이다.

이 세상에 자기의 신성한 영토에 도발의 포탄이 날아와 떨어지는데 팔짱을 끼고앉아 구경만 하고있는 당사자가 어디 있겠는가.

남조선당국은 우리가 그쯤 해놓고 사태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자체한데 대해 오히려 다형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도발은 저들이 하고 응당한 대응조치에 대해 《도발》이니 뭐니 하는것이야말로 도적이 도적이야 하는 파렴치한 도발이 아닐수 없다.

핵문제는 더우기나 남조선당국이 코를 들이밀 문제가 아니다.

조선반도핵문제는 남조선에 미국의 핵무기가 반입됨으로써 산생된 문제가

고 지금도 미국이 핵으로 우리를 위협해나설으로써 해결되지 못하고있다.

남조선을 세계최대의 핵기지로 전변시킨 미국상전에 대해서는 《핵우산》이요 뭐요 하며 비호두둔하고있는 괴뢰들이 이제 와서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민족을 지키기 위한 동족의 정의로운 핵억제력에 대해 입을 거품을 물고 고야대는 리유가 진정으로 비핵화를 위한것이 아니라라는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것은 미국을 등에 업고 우리를 무장해제시켜 북침야망을 실현해보려는 흉심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우리가 루차 강조한바와 같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그 어느 한쪽의 절반짜리 비핵화가 아니라 조선반도전체를 포괄하는 비핵화이다.

따라서 조선반도핵문제를 해결하려면 남쪽에 있는 미국핵기지와 핵장비들이 철수되고 미국의 핵위협이 응당 제거되어야 한다.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공동성명에는 남조선이 핵무기를 끌어들이지 않으며 미국이 우리에게 대해 핵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담보와 각자가 자기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동시행동원칙》이 명시되어있다.

남조선당국이 우리에게 대해 핵포기를 운운하겠으면 적어도 이러한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비핵화를 위한 실제적인 의지표시로 6자회담과 9.19공동성명과 2.13합의도 채택하였으며 냉병원 자력발전소가동을 중단하고 전세계가 지켜보는 속에서 핵각담까지 폭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행동의지》니 뭐니 하면서 그것을 《진정성》과 결부시켜 우리를 절고드는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다.

남조선당국은 조선반도비핵화과정을 파란시키고 오늘에 와서는 6자회담마저 거부하는것이 과연 누가이 핵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더 공부하고 《진정성》에 대해 입을 올려야 할것이다.

남조선당국이 그 누구의 《변화》를 떠들고있는데 대해 론한다고 해도 사실은 우리가 그들에게 대고 해야 할 말이다.

현 남조선보수당국자들의 모든 사고방식과 행동거지는 낡은 령전대결시대의 화석처럼 굳어졌다.

그들이 북남관계에서 이른바 《원칙고수》를 부르짖는 그자체가 변화를 부정하는것이다.

우리로 말하면 인민대중의 지향과 시대적추세에 맞게 모든것을 부단히 변화발전시키고있으며 북남관계에서도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있다.

조진없이 누구와도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우리측 주장과 부당한 조건부름 내걸며 그것이 해결되기 전에는 대화를 할수 없다는 남측주장이유래 누가 진정성이 있는가 하는것은 론할 여지조차 없다.

서로 마주앉아야 진정성도 알게 되는것이 마주앉아보지도 않고 진정성을 운운하는것은 진정성으로 대화를 하려는 자세가 아니다.

괴뢰당국이 《진정성》간판을 내걸고 그 무슨 《체제변화》같은것을 꿈꾸고있다면 그것은 억년가도 영원히 실현될수 없는 어리석은 망상이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남조선당국이 무엇때문에 열도당도없는 《진정성》타령을 부질없이 계속 외워대는가 하는것이다.

그것은 북남관계에 파국을 몰아넣고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는데 대한 내외의 비난여론을 모면하고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며 대화와 협상을 가로막고 대결과 전쟁책동에 계속 매달리기 위한것이다.

남조선당국자들에게 애당초 북남관계와 대화의 진정성이 전혀 없다는것은 집권하자마자 《잃어버린 10년》을 떠들면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무참하게 짓밟고 《기다리는 전략》과

《원칙고수론》을 제창하며 북남관계를 파국에 밀어넣었으며 지어 극도로 첨예한 지금의 북남관계가 《정상》이고 《입기기간에 북과 대화를 하지 않아도 좋다.》고 공언하고있는 사실이 운운적으로 실증해준다.

그 누구의 《체제변화》와 《급변사태》를 떠들며 우리의 대화제에 반공화국식리전과 북침전쟁책동으로 대담해나서면서 《진정성》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상대방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모독이다.

그들은 우리의 시종일관한 대화, 평화립장과 그를 지지공감하는 내외여론앞에 더 할 말이 없게 되어 궁한 나머지 막무가내로 《진정성》타령만 되풀이하고있는것이다.

남조선당국의 《진정성》퀘변에는 심각한 내대통치위기를 수습해보려는 목적이 없다.

남조선보수당국은 지금 내외의정책의 총파산과 경제와 민생파탄, 사회정치적혼란 등으로 커다란 위기에 처해있다.

보수당국의 집권 3년간 악정으로 남조선은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극심해져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특권층이 전체의 부를 장악하고 90%를 빈곤자로 전락시켰으며 매춘부가 125만명, 절대빈곤청소년수가 100만명, 청년실업자 450만명, 집없는 세대 전체 세대의 54%, 매일 35명 이상의 자살, 해외이민자는 미국에만도 집권기간 40만명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북남관계와 관련해서도 6.15매를 그리워하면서 당국의 대결정책철회와 대화와 협력을 요구하는 각계층의 목소리가 더욱 세차게 터져나오고있다.

이번 집권 3년 여론조사결과에 남조선인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보수당국은 저들에게 쏠린 민심의 분노를 탄대로 돌리며 대화와 협력의 길을 가로막기 위해 《진정성》이요

필요 하며 요술을 부리며 하고있는것이다.

남조선당국의 《진정성》타령은 미국과의 침략적공모결탁의 산물이기도 하다.

지금 미국은 세계적범위에서 저들의 지위가 나날이 쇠퇴하고 특히 동북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이 급격히 약화되고있는데 대해 우려하면서 침략적인 지배권유지를 위해 광분하고있다.

더우기 미국은 세계자주화위업의 보루이고 사회주의기치이며 반미투쟁의 최전선에 서있는 우리 공화국이 핵보유국의 지위에 올라서고 강성대국으로 승승장구하고있는데 대해 질겁하면서 어떻게 하나 압살해보려 하고있다.

핵문제에 대해서는 《선 남북대화, 후 6자회담》을 떠들며 그 해결에 장애를 조성하고 북남대화는 괴뢰들이 《진정성》을 구실로 가로막도록 함으로써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다 안되게 하려는 음흉한 속심을 추구하고있는것이 바로 미국이다.

실로 남조선당국의 《진정성》타령은 저들의 후심을 가리우고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며 대결과 전쟁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구차한 변명이고 궁색한 퀘변이다.

우리는 이미 남측에 성의와 진정성을 보여줄것은 다 보여주었다.

남조선보수당국은 그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는 《진정성》의 보자기로 저들의 불순한 정체를 감싸면서 만전을 부리지 말고 자기의 진정성부터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서론 잔편을 부리며 북남관계와 대화문제를 우롱하지 말아야 하며 《진정성》타령을 걸어치우고 성실한 태도로 나와야 한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의 태도를 계속 지켜볼것이다.

(《로동신문》에서 전재)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적극 지지할것이다

역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리행하여 나라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겨레의 투쟁에 대한 지지와 련대의 목소리는 세계 여러 나라 불교도들속에서도 힘차게 울려나오고있다.

지난해 11월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에서 진행된 세계불교도대회 제25차총회에 참가하였던 여러 나라의 불교대표들과 불교국제기구 일꾼들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며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조선의 불교도들과 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지지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세계불교도대회 총서에는 《세계불교도대회는 지난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적극 지지할것이다. 이것은 평화와 화합, 평등을 리념으로

세계 불교도들의 목소리

하고있는 우리 불교도들의 의무이기도 하다. 이번에 조선대표단이 6.15북남공동선언에 따라 조선반도의 평화통일을 실현할데 대하여 제기한 결의안은 대단히 훌륭하다.》라고 하면서 결의안의 채택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결의를 피력하였다.

또한 세계불교도대회 서기국 조직자는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령도자님께서 피나가시는 선군정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있으며 선군정치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억제되고 평화가 수호되고있다는것을 잘 알고있다. 현재에서 와서까지 조선인민이 나라의 분렬로 고통을 당하고있는것은 력사의 비극이다. 이러한 비극을 끝장내기 위하여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활동

을 더욱 적극화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노르웨이불교협회 회장인 《우리는 조선의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령도자님께서 훌륭한 조국통일방안들을 내놓으신데 대해 잘 알고있다. 우리는 조선의 북과 남의 불교도들을 비롯한 각계종교인민들이 대화와 협력, 교류를 통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는것을 적극 지지한다. 앞으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며 련방제방식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불교도들과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활동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하였다.

방글라데시불교협회 회장은 《우리는 항상 조선의 불교도들과 인민들의 편에서 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세력들이 조선을 압살하려고 책동하고있지만 어렵도 없다. 조선은 선군정치를 하여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있다. 조선을 당할자는 없다. 선군정치로 하여 조선은 반드시 통일될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총회를 주최한 스리랑카전세일불교대회 회장인 앞으로 스리랑카와 조선 두 나라 불교도들의 련대와 친선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며 특히 분렬의 고통을 가시고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며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과 불교도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활동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중국, 인디아, 오스트랄리아, 도이칠란드 등 여러 나라의 불교대표들도 조선반도

에서 평화를 수호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과 불교도들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련대활동을 적극화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총회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 불교도들의 지지관동속에 2000년 북남수뇌상봉에서 마련된 6.15북남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불교도들과 인민들의 노력에 지지와 보낸다. 내용은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여러 나라 불교도들과 정보통신류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속에 우리 겨레는 6.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높이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진군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조선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 부원 리영호

조선 지진국장 백두산 화산활동에 대한 공동연구사업을 남측에 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진국장은 민족공동의 리익에 부합되게 백두산화산활동과 관련한 연구사업을 북과 남이 공동으로 추진할것을 제의하는 편지를 17일 남조선 지진장에 보내왔다.

편지는 최근년간 세계 각국에서 지진 및 화산현상들이 빈번히 일어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특히 이번 일본대지진이

동연구사업과 관련한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한바 있으므로 량측의 관계당사자들이 빠른 시일안에 개성이나 금강산에서 만나 백두산화산공동연구와 백두산현지답사, 학술토론회 등 필요한 협력사업들을 추진시켜나가기 위한 협의를 진행할것을 제의하였다.

본사기자

반전평화수호투쟁

반전평화수호투쟁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투쟁이다. 남조선당국의 동족대결책동으로 하여 북남관계가 파국에 처하고 전쟁불구름이 시시각각 몰려오고있는 지금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민족의 운명을 지키기 위한 초미의 과제로 나서고있다.

북남관계의 위기를 타개하고 평화와 통일 의 새로운 국면을 열려는 공화국의 성의 있는 노력에 의하여 모처럼 열렸던 고위급 군사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을 결렬시킨 남조선보수당국은 외세와 아합하여 범죄적인 북침합동전쟁들을 벌여놓고 하늘, 땅, 바다를 전쟁의 화약내로 뒤덮고 있다.

림소영

만약 이 땅에서 다시 전쟁이 터진다면 우리 민족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 무참히 짓밟게될것이며 우리 겨레는 돌이킬수 없는 참혹한 재난을 당하게 될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두말할것 없이 북과 남의 우리 민족이고 리득을 볼것은 침략적인 외세이다.

평화가 있어야 민족이 있고 통일과 번영도 온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외세와 그에 추종하는 반동일호전세력의 전쟁책동을 짓부시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의 불길들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민족의 안위를 도모하고 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안아와야 할것이다.

온 세상에 자랑높은 단일민족

민족적근지와 자부심은 애국주의의 발현으로서 온 겨레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한몸바쳐 나설수 있게 하는 사상정신적 원천이다.

우리 민족은 오랜 력사와 우수한 문화전통을 가지고있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단일민족이다. 대동강유역에서 발견된 수많은 고대문화유물과 유적들은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이 땅에서 세계5대문화의 하나인 《대동강문화》를 창조하고 대대로 한족들을 이어보이며 살아왔다는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민족애에 의해 신화로운 전해조던 단군이 실재한 력사적 인물로 고증됨으로써 우리 나라의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동방의 문명국이라는것이 명백히 밝혀지게 되었다.

동방에 일찌기 나라를 세운 우리 민족은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장구한 력사적간 자기의 민족적정통을 꿋꿋이 이어왔다.

예로부터 불의를 증오하고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며 도덕의리를 귀중히 여기는 우리 민족은 어느 민족

보다 자주성이 강하고 자존심이 높았다. 애국심이 높고 용감한 우리 민족은 외적이 침입할 때마다 남녀노소 모두가 떨쳐일어나 침략자들을 물리쳤다. 외래침략자들의 끊임없는 침입을 격퇴하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꿋꿋이 지켜온것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이렇듯 조선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 외래침략자들과 곱합없이 싸웠으며 열렬한 조국애와 용감성, 불굴의 기상성을 온 세상에 떨쳐온 긍지높은 민족이다.

뛰어난 슬기와 재능을 지닌 우리 민족은 자기의 근면하고 성실한 창조적로동으로 일찍부터 인류문화발전에서 크게 기여해왔다.

우리 민족은 고대로부터 높은 수준의 금속문화를 창조하였다. 우리 조상들이 유럽나라들보다 훨씬 앞서 만들어낸 철제도구, 청동제품들은 그 질과 제조기술에 있어서 당시로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것이였다.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까지 그 색이 변하지 않는 고구려무덤벽화

들과 우아하고 아름다운 조선화 등은 우리 민족이 뛰어난 창조적지혜와 높은 예술적재능, 풍부한 정서를 가진 우수한 민족이라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고조선의 고인돌무덤에 세워진 별자리와 고구려무덤벽화에 그려진 별자리그림, 7세기 전반기 우리 선조들이 만든 첨성대 등은 우리 나라에서 천문학이 일찍부터 매우 발전하였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우리 선조들에 의해 15세기에 들어와 혼민정음은 창제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단일민족으로서의 민족성을 더욱 빛내고 나라의 과학과 문화를 보다 발전시킬수 있는 토대를 가지게 되었다.

이뿐이 아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낸 금속활자와 측우기, 거북선 등과 세상에 이름높은 고려청자기, 비단, 종이...

일찍부터 동방일각에 거연히 솟아올라 그 위용을 떨치며 유구한 세월 민족문화를 찬란히 꽃피워온 슬기로운 우리 민족의 자랑과 긍지는 끝이 없다.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북침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반공화국대결정책의 최절정

남조선에서 북침전쟁연습의 포성이 그칠새없이 계속 울리고있다. 《키 리졸브》합동군사연습은 끝났지만 이 연습과 함께 시작된 대규모 실동연습인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4월말까지 계속되게 된다. 얼마전에는 남조선전역에서 대규모의 민방위훈련까지 벌어졌다. 지금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는 미군과 남조선군이 쓰아내는 총포탄으로 하여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있다. 조미가 지금도 적대적인 교전관계에 있고 북남관계도 사상최대로 악화되어있는 속에서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이 연일 발광적으로 벌어지고있는것이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을 최대로 격화시키고 자칫하면 전쟁을 불러올수 있는 위험천만한 망동으로 된다는것은 더 논의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을 반대하는 엄청난 군사적도발을 저지른 남조선의 호전세력은 철회되하게도 《방어연습》이니 뭐니 하며 여론을 심히 우롱하고있다. 지금의 침략적

전쟁연습은 남조선당국의 시종일관한 반공화국대결정책의 연장이다. 그 최절정을 이루는것이다. 알려진것처럼 남조선의 보수세력은 집권하자마자 이전 《정권》과의 《차별화》, 《정책변화》를 떠들면서 《비핵, 개방, 3 000》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대북정책》을 들고 나왔다. 이 《대북정책》이라는것이 동족을 무장해제시키고 체제변화를 일으키는 자라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잃어버린 10년》을 떠들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마구 헐뜯고 그 리행을 공공연히 거부해나선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6.15지시세력을 《보안법》에 걸어 마구 탄압하는 한편 저들의 반민족적인 《대북정책》에 따르는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거리낌없이 제창하면서 체제대결소동에 피눈이 되어 날뛰어왔다. 남조선의 집권세력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위》

를 보장하는 기초우에서 통일해야 한다고 하면서 《체제전복》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1국가 1체제》론에 기초한 반민족적인 《민중공동체통일방안》까지 로골적으로 내놓았다.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있으며 어느 일방도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양보하려 하지 않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부정하고 전복하려 든다면 어차피 초래될것은 전쟁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종일관 《흡수통일》의 망상에 사로잡혀 체제대결소동을 계단식으로 확대강화해왔다. 이것은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목적 달성을해보려는 용납 못할 책동이다. 실제로 남조선당국은 《진정성》이니, 《북의 변화》니 뭐니 하고 떠드는 리면에서 외세와 함께 북침을 노린 각종 전쟁연습책동에 광분해왔다. 《주적론》을 되살리고 군장병들이 《우리의 적은 북이다.》라

는 문구가 들어간 선서와 결의문의 무적으로 외위대도록 하는 한편 6.25전쟁기념행사, 인천상륙작전재연행사를 벌려놓고 전쟁열기를 고취하였다. 지어 특대형모략극인 함선침몰사건을 꾸며내고 연평도포격도발사건까지 일으켜 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국면으로 몰아왔다. 최근에는 기존의 북침전쟁각본보다 공격성이 훨씬 강화된 《신련합작전계획 5012》와 《작전계획 5029》를 짜놓고 그것을 실현에 옮기기 위해 발악하고있다. 지금 벌어지고있는 미국과의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이 바로 북침전쟁공격과 점령통치, 새로운 국지전도발을 준비하기 위한 도발적인 전쟁연습이다. 남조선당국의 범죄적인 동족대결정책과 전쟁정책이 계속되는 한 앞으로 이 땅에서 또 어떤 위험천만한 군사적충돌이 일어날지 누구도 예측할수 없다.

연평도와 독도는 조선반도의 서해와 동해에 위치하고있는 자그마한 섬들이다. 지도상에서 점으로나 표기되는 이 섬들이 오늘 우리 민족은 물론 세인이 우러의 눈길로 주시하는 섬들로 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당국이 반공화국대결정책과 사대대국정책에 매달리고있기 때문이다. 남조선당국의 동족대결, 전쟁책동으로 하여 연평도와 지금 조선반도에서 가장 불안하고 위험한 섬지역으로 되고있다. 알려진것처럼 지난해 남조선당국은 북의 코앞에 위치하고있는 연평도에서 수천명의 포탄을 마구 쏘아대는 도발소동을 벌렸다. 공화국 군대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감행된 이 무모한 도발행위로 하여 끝끝없는 북과 남사이에 포탄과 포탄이 오고가는 군사적충돌까지 발생하였다. 여기서 교훈을 찾고 자제할대신 남조선의 호전세력은 세해에 들어와서도 연평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군사적도발을 일으키려고 비렬하게 책동하고있다. 지금 서해의 작은 섬인 연평도에는 각종 대군정포를 비롯한 수많은 군사장비와 병력이 집중적으로 증강배치되어 섬 전체가 새로운 북침공격도발을 위한 전초기지, 공격출발진지로 화하고있다. 남조선군당국은 《국방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연평도를 포괄하는 《서북도 서방위사령부》까지 내오려 하고있다. 얼마전에 진행된 《키 리졸브》합동군사연습시에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상의 5개 섬에서 그 무슨 《국지전도발》의 6가지 유형을 미리 설정해놓고 북을 선제타격하며 북의 전략적거점을 타격하기 위한 도발적인 연습도 발광적으로 벌려왔다. 이렇게 연평도를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을 위한 주요 무대로 만들어놓은 남조선당국이 민족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있는가. 지금 일본은 우리 민족의 신성한 령토인 독도를 저들의 《다게시마》로 만들기 위해 법률적, 정책적, 군사적준비를 다 갖추

고있다. 울해에도 일본은 《다게시마(독도)의 날》을 빼앗아 《기념》하였고 역사교과서에 독도를 《일본령토》로 표기하였다. 이번에 새로 임명된 일본의상도 《독도는 일본령토》라고 거리낌없이 말하였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이에 응당한 항의를 표시하고 대책을 세울대신 교착외교통상부 문명을 통해 독도 《명유권》주장을 철회하라는 식으로 유아무야해 버렸다.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다게시마의 날》행사에 참가한데 대해서도 겨우 유감이라고 표명한 정도이다. 얼마전 남조선의 한 통신이 밝힌데 의하면 《독도명토수호특별법》등 독도와 관련된 10여건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어느것 하나 제대로 논의된적이 없다는것이다. 일본의 비위를 잘못 건드릴까봐 독도 주변에 건설하는 해양과학기지도 《독도기지》로부터 《동해기지》로 명칭을 바꾼 남조선당국이다. 연평도포격도발을 구실로 일본에 더 바짝 빌붙으며 동족을 반대하는 군사적야합을 구걸하는것이 남조선당국의 대일자세이다. 이미전부터 일본에 대해 《과거를 묻지 않는 미래지향관계》를 떠들어온 남조선당국은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사건을 계기로 저들을 지지해준 일본에 감지덕지하며 독도문제에서도 그들의 눈치를 보기에 여념이 없다. 이것을 절호의 기회로 삼아 일본은 조선반도의 《유사시》에 자위대무력을 파견하겠다는 채찍기도까지 공공연히 드러냈다. 남조선의 한 인사가 일본과의 군사적협력강화로 독도가 앞으로 남조선일본의 공동군사기지로 되고 이를 계기로 일본이 독도를 군사적으로 가로타고앉을수도 있다고 경계와 우려심을 표시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연평도와 독도는 바로 남조선당국의 반동일대결과 친일사대대국적악을 폭로하는 력사의 증거자료 되고있다.

연평도 포격

최근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이 반공화국침략을 위한 무력증강소동에 이르는 때보다 열을 올리고있다. 얼마전 미국은 《키 리졸브》합동군사연습이 끝나하는 것과 동시에 공화국의 해안포들을 정밀타격할수 있는 신형 《A-10C》공격기 12대를 오산기지에 추가배치할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렇게 되면 이미 배치된 공격기까지 합쳐 《A-10C》공격기는 30대에 달하게 된다고 한다. 미국의 이러한 군사적움직임과 발을 맞추어 남조선군당국도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와 스펠스

기능을 갖춘 《F-15K》 전투기 60대를 빠른 시일안에 끌어들이려고 획책하고있다. 이보다 앞서 남조선군당국은 서해5도일대의 《요새화 계획》이라는것을 작성하고

이러한 공격용군사장비증강책동이 서해군사분계선일대에서의 무력충돌을 기정사실화하고있는 속에서 진행 된다는것이다. 알려진것처럼 서해군사분

계선일대는 쌍방간의 무력충돌이 일어날수 있는 군사적으로 가장 예민하고 긴장한 지역으로 되고있다. 이로부터 이 지역에서의 군사연습과 무력증강 등 사소한 군사적움직임도 무력충돌의 불씨로 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현 군부세력은 있지도 않는 선제공격장비증강책동이 무엇을 노린것인가는 너무도 명백한것이다. 그것은 임의의 시각에 군사적충돌을 일으키고 그것을 기화로 전면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한것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합동전쟁연습이 발광적으로 벌어지고있다. 그속에서 무력증강책동도 도수를 넘게 진행되어 조선반도의 정세를 갈수록 더욱 긴장격화와 전쟁으로 몰아가고있다.

이런 현상에서 벌어지는 선제공격장비증강책동이 무엇을 노린것인가는 너무도 명백한것이다. 그것은 임의의 시각에 군사적충돌을 일으키고 그것을 기화로 전면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한것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합동전쟁연습이 발광적으로 벌어지고있다. 그속에서 무력증강책동도 도수를 넘게 진행되어 조선반도의 정세를 갈수록 더욱 긴장격화와 전쟁으로 몰아가고있다.

무엇을 노린 무력증강인가

이 일대에 다음해까지 《K-9》자행포, 다련장로켓, 신형대포미사일, 해안포정밀타격용 유도미사일 등을 대량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소동을 벌려왔다. 더우기 간파할수 없는것은

이 일대에 다음해까지 《K-9》자행포, 다련장로켓, 신형대포미사일, 해안포정밀타격용 유도미사일 등을 대량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소동을 벌려왔다. 더우기 간파할수 없는것은

이 일대에 다음해까지 《K-9》자행포, 다련장로켓, 신형대포미사일, 해안포정밀타격용 유도미사일 등을 대량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소동을 벌려왔다. 더우기 간파할수 없는것은

이 일대에 다음해까지 《K-9》자행포, 다련장로켓, 신형대포미사일, 해안포정밀타격용 유도미사일 등을 대량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소동을 벌려왔다. 더우기 간파할수 없는것은

이 일대에 다음해까지 《K-9》자행포, 다련장로켓, 신형대포미사일, 해안포정밀타격용 유도미사일 등을 대량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소동을 벌려왔다. 더우기 간파할수 없는것은

이 일대에 다음해까지 《K-9》자행포, 다련장로켓, 신형대포미사일, 해안포정밀타격용 유도미사일 등을 대량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소동을 벌려왔다. 더우기 간파할수 없는것은



북침전쟁연습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평화시위를 벌이고 있다.

불평등한 《행정협정》의 산물

외세가 강점한 곳에서는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이 유린당하고 인민들이 멸시받기 마련이다. 미군이 강점한 남조선의 현실이 이를 립증하고있다. 얼마전 남조선강점 미군 제2사단소속 사병이 경기도 동두천시내의 한 집에 뛰어들어 70대의 로인부부를 흉기로 마구 폭행하다 못해 손전등까지 강탈해가고 도망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미군의 민족적멸시와 전횡의 일단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경악할 범죄행위이다. 문제는 남조선에서 민족적분노를 자아내는 미군범죄가 현 《정권》이 등장하면서

더욱 늘어나고있는것이다. 남조선의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가 밝힌데 의하면 미군범죄자수는 2008년에 261명, 2009년에 325명, 지난해에는 380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있다. 반면에 미군범죄자들에 대한 구속은 최근 5년간 고작 2명에 불과한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남조선에서 갖은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힌 미군은 불평등한 남조선의 미군 《행정협정》에 의해 고스란히 미군측에 넘겨주게 되어있으므로 형사 책임을 모면하는것이 대다수이다. 국도의 인간중요사상과 야수성으로 길들여진 미군

의 만행으로 남조선인민들이 당하는 피해는 이루 말할수 없다. 어린 학생들이 백주에 미군장갑차에 깔려죽는가 하면 녀인들이 미군에 겁탈당하고 상점과 주택이 약탈당하고 무지로 주민들이 폭행을 당하고있다. 사실들은 강점군이 있고 그들을 비호하는 불평등한 《행정협정》이 존재하는 한 남조선에서 미군범죄가 절대로 없어질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불평등한 남조선미국 《행정협정》을 전면개정하며 강점군을 하루빨리 남조선에서 내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본사기자 서명수

최근 남조선에서 《BBK주조작사건》의혹이 또다시 불거져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남조선의 어느 한 언론은 2007년 《한나라당》이 《대통령선거》를 한달 앞두고있는 김경준의 송환을 자기들을 노린 민주당의 《기획입국》(계획적인 입국)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공개한 수감동료의 편지가 조작된것이며 이를 현 집권자의 가족이 뒤에서 조종하였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언론은 남조선 검찰이 이를 뻔히 알면서도 덮어버렸다고 까뻐하면서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알려진것처럼 문제의 《BBK주조작사건》이란 당시 《한나라당》의 《대통령후보》로 나선 현 집권자가 금융업자인 김경준과

함께 유령의 투기회사를 공동운영하면서 주조작 등 사기협정의 방법으로 《김은 돈》을 끌어모은 사건이다. 이 문제가 제기되자 당시 현 집권자와 《한나라당》은 사건의 내막을 한사코 부인하면서 어떻게 하나 이 책

더우기 《한나라당》은 측근들을 내세워 미국법원에 로스앤젤레스교도소에 수감중인 김경준을 남조선으로 송환하는 조치를 지연시켜달라고 청탁하는 놀음도 벌려놓았다. 그것은 김경준의 송환이 《대통령선거》를 앞둔 《한나라당》에 득의를 업친난 파괴적후파때문이었다. 이렇게 《한나라당》패거리들은 어떻게 하나 《BBK주조작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번에도 다시 폭로된 《한나라당》의 편지조작은 《BBK주조작사건》의 주범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듯이 부정부패사건은 아무때건 들쭉날기마련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감출수 없는 부정부패사건

임에서 벗어나보려고 비렬하게 책동하였다. 이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자. 이 사건이 터진것은 2007년 6월이다. 그때 남조선 선거는 줄곧 이 사건에 대한 명백한 해명을 요구해나섰다. 그만큼 이 사건은 부동산 투기시절, 위장전입사건 등 《리턴X파일》로 불리우

는 많은 부정부패의혹을 가지고있는 현 집권자에게 치명적인 약점으로 되는 금융범죄사건이었다. 남조선각계의 요구에 따라 당시 《국회정부위원회》는 《한나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BBK회사 사장 김경준과 현 집권자의 처

남 등 20명을 《BBK주조작사건》해명을 위한 《국회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내세웠다. 또한 당시 미국에서 수감중인 김경준은 11월말경도 남조선에 돌아와 BBK회사의 주조작에서 현 집권자가 어떤 역할을 했으며 자의 송환을 막기 위해 어떤 뒤공작을 했는지 날말이 밝혀졌다는 립장을 표명

일본에서 지진에 의한 피해자 증가, 원자로 연속폭발로 비상사태 조성

로폭발사건이 연속 일어나고있다. 14일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 3호원자로가 폭발한데 이어 15일 2호원자로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도쿄전력회사가 밝힌데 의하면 14일 저녁부터 2호원자로의 핵수가 거의 없어져 약 4m의 연료봉이 완전히 노출된 상태에 있었다. 원자력발전소구내에서 방사선량이 또다시 제한수치를 넘어선것과 관련하여 도

쿄전력회사는 전국에 비상사태를 통보하였다. 발전소에서 작업중이던 2명의 일본인과 구조활동에 동원되었던 미항공모함의 직승기승조원 17명이 방사능피해를 먹은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자로의 편이는 폭발로 지금 후쿠시마시는 유령도시로 변해가고있다고 외신들은 전하였다.

은행, 우편국 등 공공건물들이 폐쇄되었으며 거리의 곳곳에서 고동소리가 울



외교적인 망신만 일삼는 현 당국 비난

최근 남조선에서 외교관으로 해외에 나가있는 사람들의 더러운 추문사건이 터져 파문을 일으키고있다. 일명 《상해 스캔들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건의 내용인즉 이웃나라에 주재하고있는 총영사관의 전직 총영사를 비롯한 세명의 영사들이 재직기간 정체불명의 그 나라 녀성과 접촉하는 과정에 그와 불륜의 관계를 맺었을뿐아니라 정보까지 루실한것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로 등장한 전 총영사는 현 집권자의 측근으로서 《락하산인사》의 전형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사건이 터지자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

권 4년차에 리명박 (정권)의 레임덕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여기에 리명박 (대통령) 측근들의 편이 은 비리의혹과 정보기관의 권력투쟁양상까지 나타나는 등 국정운영이 총체적난국 상황에 이르렀다.》며 현 당국을 비난하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사과와 구제역과 불가대한, 전세대란과 관련된 장관들, 정보원 사태 원세훈정보원장, 상해 스캔들 김성환외교통상부장관, 남북관계파탄을 물어 현 인력통일부장관의 교체》를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합동조사단이 상해로 조사하러 갔는데, 국정원의 인도

네시아속소잡입사건도 축소 은폐됐듯 이번 (상해개망신) 사건도 축소은폐될 가능성이 크다.》며 《(상해 스캔들) 들에 정보기관이 개입됐는지, 정보류출 등의 과정보호를 조작하는데 정보기관이 어느정도 기여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이같은 의혹을 밝히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상조사단이 아니라 진상조사단이 될것》이라며 《국민들이 합동조사단을 (합동조사단)이라고 지칭하는 순간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인민들이 좋아하는 맛들어진 샘물생산기지

***** 통 약 산 샘 물 공 장 을 찾 아 서 *****

깨끗하고 현대적인 일터

통약산샘물공장은 통약산의 주봉인 대봉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곳에 자리잡고있다. 장수자들이 많이 나와 원로리라고 부르는 이 고장의 샘물은 그 맛이 좋기로 오랜 옛날부터 널리 알려져 있었다. 한쪽에는 과일나무가 늘어서있고 뒤산에는 소나무 숲 우거진 명당자리에 일떠선 샘물공장은 주변 풍치와 어울려 한쪽의 그림을 보는 듯싶었다.

생산현장에서 우리와 만난 김동숙지배인은 공장이 조업한 때로부터 지난 여러해 동안 인민들에게 수질이 좋은 샘물을 많이 보내준데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먼저 수증짚질이 설치된 펌프장으로 안내하였다. 공장에서는 지하깊이에 박아넣은 짚짚을 통하여 하루에 수백m³의 샘물을 퍼올려 가공공정으로 보내고있었다.

샘물가공의 첫 공정이라고 할수 있는 펌파 및 소독공정에서는 방금 퍼올린 샘물이 한점의 티도 없이 깨끗하게

러파되고있었다. 모래와 활성탄을 리용한 펌파공정과 1급, 2급정밀러공정 거기에 반침투러공정과 오존소독공정까지 거치게 되면 세균수치가 정상대로까지 된다니 경탄을 금할수 없었다.

그런가하면 수지병샘물주입공정에서는 샘물을 넣은 수지병들이 봉인 및 검사공정을 거쳐 출하되고있었다. 자동화된 호프선을 타고 하루에만도 10만여 l의 샘물이 쏟아져나온다는 것이었다.

샘물주입 및 포장공정의 모든 기계들은 철저한 무균상태를 보장하고있었으며 밝은 색깔의 타일들을 붙여놓은 작업장의 소독상태도 대단히 높은 수준이었다. 샘물을 다루는 공장의 특성에 맞게 대형유리칸막이들로 작업장과 통로들을 완전히 격제시킨 정갈하기 그지없는 위생적인 생산환경은 볼수록 멋이 있었다.

우리는 공장의 제품본질에도 둘러보았다. 각이한 규격의 샘물본들이 전시된

이곳에서 우리는 유명하기로 이름난 통약산샘물을 기분 좋게 들이켰다. 순수하고 담백한 샘물맛이 대번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우리의 말에 김동숙지배인은 인민들의 높은 요구를 따라가자면 아직도 멀었다고 겸손하게 말하였다. 통약산샘물에 대한 인민들의 날로 높아가는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능력을 더욱 확대하고 생산공정진반에 대한 현대화와 통합생산조체계를 완성하자면 앞으로 할 일이 많다는 것이었다.

심심에 넘친 그의 말을 들으며 생산현장을 나서는 때 마침 통약산샘물들을 그득 그득 실은 수송차들이 경적소리 경쾌하게 울리며 공장 정문을 나서고있었다. 유명한 통약산샘물을 마음껏 마시며 기뻐할 인민들의 모습을 즐겁게 그려보며 우리도 수송차에 올랐다.



통약산샘물을 사고 인민들을 찾아가는 차안에서 우리는 평양시인민위원회 상임관리국의 박성금부원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공장에서 생산한 샘물을 평양시안의 식료상점들에 정상적으로 공급해주고있다는 그의 말을 들으며 먼지 가닿은 곳의 만경대구역 축전1동 식료품상점이였다. 우리는 이곳에서 샘물을 사러 온 리명원(68살)로 인을 만났다. 로인은 어서부터 통약산샘물이 유명하다는 소문은 많이 들어왔지만 오늘 이렇게 집앞에까지 날라다주는 샘물을 마시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생각할수록 꿈만 같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정상적으로 통약산샘물을 마시고 밤도 지어먹는다는 한 녀성도 이렇게 말하였다.

《오래동안 만성소내장염을 앓았지만 통약산샘물을 마신후부터는 씻은듯이 나아졌습니다. 옛날같으면 돈많은 부자들이나 마시던 이 좋은 샘물을 오늘은 평범한 우리 인민들 모두가 마음껏 마실수 있게 되었으니 요즘은 자나깨나 우리 장군님에 대한 고마움뿐입니다.》

이것이 어찌 그들의 심정이라고 하랴. 지난 1월 한겨울의 맹장 추위도 마다하지 않고 통약산샘물공장을 찾으면서 샘물맛도 몸소

보아주시며 인민들에게 수질 좋은 샘물을 보내주고있는 것이 그리도 기쁘시어 환한 미소를 지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리들 머리속에 그려넣어 떠나지 않는 걱정을 삼키었던가. 정녕 인민의 아버지의 뜨거운 은정이 방울방울 어려 있어 통약산 샘물이 그리처럼 인민들의 한결같은 사랑을 받고있는 것 아닌가.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고 훌륭한것을 안겨주시는 데서 기쁨을 찾으시는 아버지장군님의 은정이린 통약산샘물을 실은 수송차는 사랑의 경적소리 높이 울리며 인민들을 찾아 끝없이 달리였다.



《정말 볼만 같습니나》

본사기자 김철민

예술인재양성에 지혜와 정력을 바쳐가는 교육자

지난 2월 만사람의 경탄을 자아내는 은하수관현악단의 음악회에서는 류달리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출연자가 있었다. 높은 피아노연주기교를 요구하는 세계적인 명곡을 능란한 솜씨로 연주하는 13살난 박건의학생이었다.

지난해 레알열을 계기로 열린 음악회에서 피아노2중주를 연주하고 8월에는 도이틀란드에서 진행된 제12차 에틀링엔 국제청소년피아노콩쿨에서 특별상을 수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재능있는 어린 피아노연주자에게는 사람마다 박수갈채를 보내는 그 시각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바로 금성학원의 임유순교원이다. 성공한 제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20대의 처녀시절부터 오늘까지 40여년세월,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나라의 예술인재양성을 위해 바쳐온 한생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인민학교(당시) 음악교원으로 교육자의 첫발을 떤던 그날, 임유순교원은 자기가 키우는 학생들을 나라의 음악예술을 떠메고나갈 음악인재로 키우리라 굳게 마음 다졌다.

매 학생들의 개성적특성과 특색있는 형상실현에 맞는 새로운 교수방법을 탐구하고 교육실현에 지원하기 위해 그가 지내던 낮과 밤은 그 열매가 되었다. 음악적기질을 지닌 학생들을 찾아내어 한해, 두해 품어 재능

은 청초도 안겨주었다. 임유순교원은 이렇게 말한다.

《제가 교육사업에서 자그마한 성과라도 거둘수 있는 것은 나라의 미래인 후대들을 위하여 천만금도 아끼지 않고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준 절세의 위인들의 숭고한 후대사랑과 고마운 사회주의교육제도가 가져다준 혜택이 있었기때문입니다. 우리 금성학원만 놓고 보아도 학생들의 교육사업과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도 없도록 모든것이 최상의 수준에서 갖춰져있습니나. 이처럼 훌륭한 사회주의 교육제도하에서 자기의 희망과 재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학생들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그는 끝없이 번영할 조국의 앞날을 그려보며 오늘도 아름다운 화원을 가꾸는 심정으로 유능한 예술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기 위해 자기의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가고있다.

연재수기

내 운명의 아버지 (1)

얼마전 중국에 살고있는 리도문동포가 《통일신보》 편집국에 수기를 보내어왔

마 음 의 기 등

도문—장춘행렬차는 눈이 두렵게 내려썬 드넓은 동북땅을 가로질러 쉬임없이 달리고있었다. 심한 독감기에 걸려 기침을 하는 나를 걱정 어린 눈길로 바라보던 하단의 젊은 손님이 친절히 물었다.

《갑기에 걸린것 같은데 약을 드셨는가요?》

바라보니 말투를 보아서는 연변사람같지 않았고 필경 공화국에서 온 손님같았으나 나는 조선말을 모르는 듯 중국말로 대답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상단공기가 나뉘는 갈래에 자리를 바꾸고 재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학생들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그는 끝없이 번영할 조국의 앞날을 그려보며 오늘도 아름다운 화원을 가꾸는 심정으로 유능한 예술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기 위해 자기의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떨어져사는것으로 하여 《불법이주인》, 《피난민》 등 오명을 쓰고 인간이하의 것은 천대와 멸시속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멀리 볼것도 없이 지난날 나라를 빼앗긴것으로 하여 머나먼 이역땅에 끌려가 일제의 총칼밑에 무참히 쓰러지지 않으면 안되었던 불쌍한 우리 겨레가 아니었던가.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처지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오늘 우리 해외동포들에게는 온 세상이 우리를 천하제일명장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신 강위력한 조국이 있다.

백두의 선군총대로 제국주의 강대국들을 위락려하시려는 천하제일명장을 모시어 오늘 우리 조국의 존엄과 위력은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최상의 경지에 올라섰다.

하기에 다른 나라 사람들도 조선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엄지손가락을 내흔들며 존경과 부러움을 금치 못하고있었다.

언제나 나도 사랑하는 조국에 가볼수 있을까?

나는 민족의 존엄과 긍지를 세상만방에 빛내주시는 김정일장군님을 한번만이라도 만나보고싶은 간절한 소원을 안고 신문, 방송, TV를 통하여 조국의 소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을 칭송하여 세계 여러 나라 정치인, 철학자들이 쓴 글들을 밤새워 탐독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 조국은 나의 마음속에 든든한 기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역의 바람이 아무리 모질어도 위대한 조국이 나를 지켜주고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든든했다. 이렇듯 위대한 명장을 모신 조국이 있어 나는 마침내 자기 조국을 알고 령도자를 받들출 이는 참된 인간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리도문(중국 길림성 룡정시 청옥무역공사) (다음호에 이음)

민족의 지혜와 재능이 깃든 등화용구유물들

풍치수려한 평양의 대동강 반에 자리잡은 조선민속박물관에서 《우리 나라 등화용구유물전시회》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줄수 있는 등화용구 100여점이 전시된 이곳으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 우리와 만난 박물관의 김병삼장은 등화용구란 일반적으로 어둠을 밝히는데 쓰이는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해주었다.

전시회장에는 아득한 고대 시기로부터 근대시기에 이르는 각이한 시대에 우리 인민들이 쓰던 등경류, 초대류들과 실내와 야외용의 장식등들이 전시되어있다. 여러가지 기구에 심지를 넣어 조명으로 리용한 등경류에는 등잔대, 등잔걸이, 등경걸이, 화대, 방등 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평양시 락랑구역 남사리 30호무덤과 도성동 53호무덤을 비롯한 고대시기의 무덤들에서 나온 청동등잔으로부터 고구려와 고려시기의 돌등잔, 자기등잔, 리조시기의 옥등잔을 비롯한

등잔들에는 해당 시대 우리 민족의 우수한 공예기법들이 그대로 어렸다.

옆면에 주작의 생동한 모습을 새겨놓은 고구려시기의 돌등잔이며 투경식으로 되어있는 리조시기의 자기등잔과 나무등경들도 훌륭했지만 여러가지 종류의 등경들이 특히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사기로 만든 기름발이를 등잔받침개 밑에 달아놓음으로써 심지에서 흐르는 기름을 다시 리용하게 한것이라든가 대에 새긴 새와 꽃장식 등은 깨끗한것을 좋아하는 우리 인민의 알뜰하고 간진 살림살이풍과 높은 조형예술적안목을 그대로 엿볼수 있게 한다.

전시회장에는 여러가지 초대류들도 많이 전시되어있다. 흙초대, 청동초대를 비롯한 고대시기의 초대들과 참대마디형으로 초대기 등을 형성한 죽절초대, 전설속의 동물인 해태를 형상한 백자해태받침초대, 거북받침초대 등의 기묘하고 생동한 모습은 보는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밤에 초에 불을 붙이면 그림자로 나풀



거리는 나비의 형상을 보여준다. 나비모양의 꽃반사경을 설치한 유경초대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유경초대전시대를 지나면 등롱들이 전시되어있다.

초롱 리용하여 야외를 밝히는 등화용구인 등롱은 고국원왕릉의 행렬도와 세간무덤벽화에 그려져있어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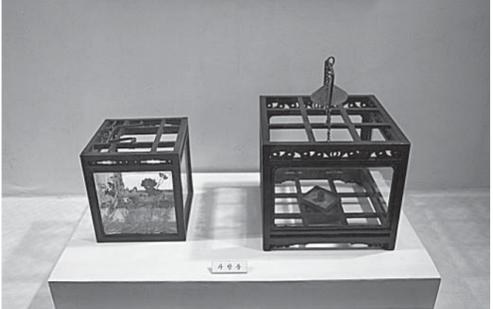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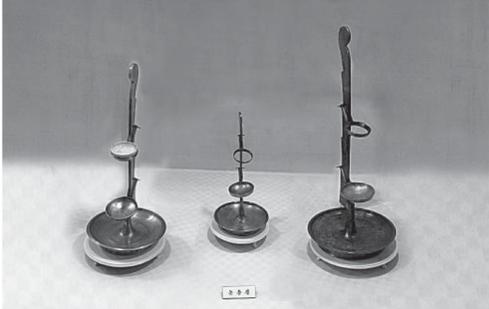
나라에서 그 사용역사가 오래다. 나뭇가지에 새겨서 만든 등롱은, 인삼을 따서 만든 등롱, 리조초기에 궁중에서 사용하던 주철등롱 등은 금시라도 초롱을 켜면 전시회장을 환히 비칠것만 같다.

이밖에도 고려와 리조시기에 많이 사용했던 학, 거북

기, 사자, 연꽃, 방울 등을 실감있게 형상한 장식등들이 실물로 만들어져 천정에서 밝은 빛을 뿌리고있다.

슬기로운 우리 민족의 지혜와 재능이 그대로 깃들어있는 등화용구유물전시회장을 환히 비칠것만 같다.

본사기자



안중근의 애국적인 시에 대하여

안중근은 조선침략의 피수인 이등박문을 처단하고 우리 인민의 독립의지와 민족의 기개를 온 세상에 파시한 애국지사이다.

그는 반일운동과 옥중생활을 하는 과정에 많지는 않았으나 애국적인 시(한시)들을 남김으로써 문인파도 같은 지성과 품도를 보여주었다. 그의 시들은 일제에 대한 적개심과 독립을 이룩하려는 굳은 각오,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의 마음, 죽음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강한 지조 등이 살아 숨쉬고있다. 그는 적들과 힘겨운 싸움을 벌리던 1908년 6월경에 의병들에게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 읊어주었다.

사나이 뜻을 품고 해외로 나가 할 일을 못다하니 몸 두기가 어렵노라 바라건대 동포여 혈전을 맹세하고 세상에 의리없는 령혼이 되지 말지어다

시는 독립의 뜻을 이루지 못한 안타까움과 자책감으로 모래기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의를 쫓아 싸움에서 끝까지 용맹하기를 다짐하는 그의 견결한 자세와 림장을 드러내었다.

안중근은 그후 이등박문을 처단하기 한달전인 1909년 9월경에는 함께 행동하던 동료들앞에서 자기의 혼들림없는 결심을 시에 담아 표명하기도 하였다.

사나이 세상에 태어나 큰 뜻 기리며 살아왔도다 시대가 영웅을 낳고 영웅이 시대를 만드나니 어찌 나라 위한 싸움에 나서지 않으리오 동족바람 서늘하게 불어와도 나의 피는 끓고있어라 비장한 결심 품고 떠나가면 뒤같은 원수놈을 기어이 처단하리

안중근은 일제에게 체포된 후에도 감옥에서 애국의 정신과 굳은 지조로 찬탄된 글들

을 많이 썼는데 그중에는 시화된것들도 있다. 사형을 앞둔 시기에도 그는 자기의 로운 행동에 대하여 후회를 몰랐으며 죽음앞에서도 꺾이지 않을 기개를 굳게 가다듬으며 세상을 잡았다.

대장부 비록 죽지만 마음은 쇠와 같고 죽음이 막두하니 기상은 더욱 도고해지노라

이밖에도 그는 감옥에서 《제일강산》, 《백세청풍》,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고 마음쓰다》, 《리익을 보거든 정의를 생각하고 위기를 당하거든 목숨을 바치라》를 비롯하여 많은 필적을 남겼다.

안중근의 시들은 조선독립의 출로를 용케 찾지 못한 세계관적제한성에 기인되는 일부 미숙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그의 애국적장가와 더불어 일제에 대한 민족적분노와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면서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전 해지고있다.

본사기자

생선맛을 계절별로 평가한 우리 나라 속담들(1)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나라에는 생선과 관련한 속담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다. 우리 민족의 풍부한 생활체험속에서 창조된 속담들가운데는 생선의 맛을 계절별로 평가한 속담들도 있다. 이 속담들에는 생선도 계절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2월 가재미 놀던 개펄 맛이 도미맛보다 좋다.》
가재미는 음력 2월에 가장 맛이 좋다는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한것이다. 가재미는 단 백질이 다른 생선보다 20%가량 많은 고단백식품이다.

—《3월 거문도 조기는 7월 칠산 장어와도 안비꾼다.》
서해의 이름난 생선인 조기의 맛을 나타낸 속담이다. 조기살로 썬 죽은 어린이와 로인들의 훌륭한 영양식품이며 배에 알이 가득차고 살이 오르는 시기인 3월의 조기맛은 《밥도적》으로 불리울만

큼 유명하다.

—《4월 삼치 한배만 건지면 평양감사도 조카같다.》
삼치는 고등어와 비슷한 물고기로서 4월(음력)에 맛이 절정에 이르며 이때 많이 잡으면 한밀천 단단히 잡을수 있다는것을 나타내었다.

—《5월 도미는 소가죽 씹는것만 못하다.》
고급어족도 제철에 잡지 않으면 최고의 맛을 느낄수 없다는것으로서 도미는 5월이 아니라 겨울철에 잡아야 진맛을 알수 있다는것을 나타내었다.

《어두진미》라는 말도 도미의 대가리가 희고로 맛있다는데서 유래된 것이다.

—《오뉴월 뱀땀이》
생선이 드문 여름철에 뱀땀이맛도 팬찮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청어피에 속하는 뱀땀이는 음력 5~6월에 제일 맛있다.

본사기자

룡강일대에서 고구려벽화무덤 또 발견

얼마전 사회과학원 고고학 연구소 연구사들이 평안남도 룡강일대에서 고구려벽화무덤을 발견하였다.

지난 시기 쌍기둥무덤, 룡강큰무덤, 황룡산성 등 고구려의 유적이 많은것으로 알려져 이 일대에서 벽화의 내용과 형식이 우수한 무덤이 또다시 발굴고증되어 학계의 이목을 끌고있다.

무덤은 룡강군 옥도리소재지의 낮은 언덕에서 발굴되었으며 4세기말~5세기초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남으로 길게 놓인 돌칸 흙무덤은 안길, 앞칸, 그 좌

우벽에 벽장처럼 움푹 들어간 감실과 사이길, 안칸으로 이루어져있다.

현재 남아있는 길이 2.85m, 너비 2.83m, 높이 2.28m의 안칸은 벽보서리마다 기둥과 두공, 도리를 장식하여 마치 지상건축물처럼 꾸려져있다.

특히 다양한 주제와 풍부한 내용을 가진 벽화가 이채를 띠고있다.

북쪽벽에 있는 벽화에는 휘장을 걸어올린 장방안에 아름다운 옷차림을 한 남녀 부남으로 길게 놓인 돌칸 무덤주인공의 실생활을 반

영하고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로 볼수 있는 7명의 남녀와 춤을 추는 9명의 무용수들을 형상한 동쪽벽의 우아한 그림은 당시 고구려가무예술의 특징과 수준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서쪽벽에는 사냥그림이 있고 벽체들의 옷부분에 화려한 무늬들이 그려져있다.

새로 발굴된 벽화무덤은 우수한 건축술과 회화술, 당시의 풍습 등을 보여주는 귀중한 유적으로서 고구려문화 연구에 큰 도움을 줄것이다.

본사기자

작가일화 거듭 수정된 종결문

부피 두터운 장편소설, 그것도 다부작으로 이루어진 장편소설에 들어간 어휘나 단어들을 개개로 세어본다면 몇천몇만이 되려. 이루어진 내용을 가진 벽화가 이채를 띠고있다.

북쪽벽에 있는 벽화에는 휘장을 걸어올린 장방안에 아름다운 옷차림을 한 남녀 부남으로 길게 놓인 돌칸 흙무덤은 안길, 앞칸, 그 좌

우벽에 벽장처럼 움푹 들어간 감실과 사이길, 안칸으로 이루어져있다.

현재 남아있는 길이 2.85m, 너비 2.83m, 높이 2.28m의 안칸은 벽보서리마다 기둥과 두공, 도리를 장식하여 마치 지상건축물처럼 꾸려져있다.

특히 다양한 주제와 풍부한 내용을 가진 벽화가 이채를 띠고있다.

북쪽벽에 있는 벽화에는 휘장을 걸어올린 장방안에 아름다운 옷차림을 한 남녀 부남으로 길게 놓인 돌칸 무덤주인공의 실생활을 반

려운대로 다 보내달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커다란 원고 보따리가 작가에게 되돌려졌다.

다음날 아침 그 원고보따리가 편집원에게 다시 돌아왔다. 편집원은 무엇이 어떻게 수정되었는지 호기심을 금할수 없어 이미 약속한대로 원고지를 접어놓은 곳을 펼쳤다. 그곳의 한문장에 올리는 작가만이 진정한 작가로서 자기의 임무를 다할수 있다.

그에 대한 좋은 모범을 공화국의 문단에 큰 자욱을 뚜렷이 새겨놓은 소설가 리기영의 창작생활에서 찾아볼게 된다. 리기영이 원고지 수천매에 달하는 다부작 장편소설 《두만강》을 탈고하여 편집부에 보낸 직후였다.

어느날 리기영은 출판사 편집부에 그 원고를 돌려보내달라고 하였다. 작가가 어디에 수정할 생각이 생겨 그러리라 여긴 편집원은 어느

아 그 부분 앞뒤를 다시 읽고 음미해보며 재삼 고쳐놓은것이였다.

자기 작품에 들어있는 작가의 그 진지한 노력! 편집원이 받아안은 감동이 큰데 전화가 울리었다. 리기영작가가 걸어온 전화였다. 그는 매우 미안쩍은 어조로 말하였다.

《그 문장을 두고 어쩔지 귀한 말한데 맛이 없는 옷을 막 입혀 밖에 내보내것처럼 마음에 걸려있었는데 문제는 된것 같소. 편집원동무한테 너무 분주하게 그래서 미안하오.》

작가 리기영의 작품들마다에 흐르는 것처럼 짙은 민족적감정, 그윽한 문장, 간결하고 정확한 구성, 풍부한 표현력과 세련된 필치로 이루어진 문장...

그것들은 자그마하고 평범한 표현 하나에 이르기까지 거칠기 싫어하고 끝없는 노력을 쏟아부은 작가의 책임적이고도 성실한 노력의 결과인것이다.

본사기자

단편소설 아버지의 약속 (9)

글 량 흥 일, 그림 허 은 혁

최정삼은 책상밑에서 피나 무관자들을 한아름 안아 주정필앞에 놓았다. 그리고 그 우에 돼지가죽으로 만든 공주주머니같은것까지 척 올려놓았다.

순간 주정필은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수가 없었다. 매피나무관자마디에 조선자연지도가 그려져있었다. 그리고 가죽주머니에는 파손된 차기판의 변대를 두드려서 만든 여러 형태의 크고작은 《관화칼》들이 나란히 누워있는것이 아닌가.

《자, 이제부터는 미국놈 새끼들을 이긴 승리한 인민답게 이 그림을 따라가면서 더 크게 더 멋있게 새기자구. 그러구 앞으로 새끼구 통일되는 날 우리 함께 동무의 고향인 인천에 가서

해연에게 안겨주자구. 알겠나?》

《!...》

최정삼의 말은 뜨겁고도 절절하게 울리며 주정필의 흥분을 세차게 두드렸다. 아, 이 지도는 나라는 개인이 아니고는것이 아니었구나. 바로 38°선이 없고의 세가 없는 우리 조선지도는 나만이 아니라 온 종대, 아니 온 나라 인민의 피로써 새겨졌었구나!

며칠후 주정필과 김성각은 종대장을 찾았다. 그들은 제대명령을 받았던것이다. 성각은 대학으로 가게 되였지만 정필은 이렇다한 결심을 내리지 못했었다. 그가 인천이 바라보이는 강변반도에 가서 살기로 결심을 하였다.

그들은 종대장 최정삼이 보이질 않아 그를 찾아 고지의 정점까지 올랐다. 그런데 최정삼은 화염에 구슬린 바위에 앉아 멀리 검은 구름이 밀려드는 남쪽하늘가를 바라보고있었다. 그의 눈에서는 뜻밖에도 눈물이 흘러내리고있었다. 전승의 기쁨으로 들끓고있는 이때에 감정이 없었던 최정삼의 눈에서 눈물을 보는것은 천만뜻밖의 일이었다. 아마 종대군인들과 헤어져야 하는 석별의 정이 금강석같은 사나이의 가슴을 울렸을것이라는 짐작이 들었다.

《종대장동지!...》

나지막하게 울리는 주정필의 목소리에 최정삼은 눈굽을 훔치며 돌아섰다.

《무슨 일이요?》

《저흰 오늘 제대...》

《아하, 그렇지, 제대되지.》 하며 그는 다시 돌아섰다.

《가슴이 러지오. 이 가슴이 말이야. 저 미국놈들을 모조리 죽랑치고 조국을 통일하자고 3년동안 피를 흘리며 싸웠는데...》

동무는 어린 딸에게 가다리는 고향땅으로 못가게 되었으니... 아, 해연의 운명은 장차 어떻게 되겠는가.》

《!》

《내 어깨에 총대를 메고 국민당놈들과 싸우면서 남의 땅은 섬 하나를 남겨두고 조국땅은 다 찾지 못했으니... 아, 이 영통이 러져와 어찌 참을수가 있나.》

주먹으로 바위를 내리치는 종대장, 그의 불끈 들어진 주먹에서 흘러나오는 붉은 피.

《종대장동지!》

《우린 빛을 졌어. 해연을 비롯한 우리 자식들에게 너

무나도 큰 빛을 졌단 말이야.》

주정필과 김성각의 요언저리는 찌릿해졌다. 언제나 용맹하고 참대처럼 굳으며 맹정하던 그의 얼굴에서 비통한 눈물을 보는 순간 전승의 기쁨과 함께 추겨치는 피로

우과 절통감이 또다시 그들의 온몸을 쭈서냈다.

《주동무, 떠나자구. 고향이 바라보이는 곳에 가서 힘을



건강상식 건강에 유익한 배게들

— 만성머리마름, 눈피로지 로에 좋은 결명자배게

결명자는 눈의 피로를 해소할뿐아니라 건강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하게 한다.

결명자는 성질이 차기때문에 살짝 볶아서 사용하는것이 좋다.

그대로 오래동안 베고 자는 경우에는 속이 차질수 있어 오히려 불면증의 원인이 될수 있다. 결명자를 약한 불에서 볶거나 높은 온도에서 말리운 다음 잘게 부스러뜨려 고르게 섞어 베게속을 만든다.

— 편두통환자에게 좋은 참숯배게

참숯은 세균번식을 억제하고 공기중에 오염된 성분이나 해로운 불순물을 흡착 및 분해하여 공기를 정화시

킬수 있다. 결명자를 약한 불에서 볶거나 높은 온도에서 말리운 다음 잘게 부스러뜨려 고르게 섞어 베게속을 만든다.

— 편두통환자에게 좋은 참숯배게

참숯은 세균번식을 억제하고 공기중에 오염된 성분이나 해로운 불순물을 흡착 및 분해하여 공기를 정화시

켜며 냄새를 제거하는 작용을 한다.

또한 습기가 많을 때에는 수분을 흡수하고 건조할 때에는 수분을 방출하여 실내의 습도를 자연적으로 조절해준다. 참숯배게는 땀과 냄새를 흡수하며 뛰어난 통기성이 있기때문에 편두통환자에게 효과가 좋다.

본사기자

유모아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어느 한 연회에서 로케트전문가가 열정적인 어조로 친구들에게 선포하

것 일하라구. 우리가 이 땅우에 부강한내 조국을 건설하는 길은 바로 조국을 통일하는 길이야. 고향에 있는 해연을 그리며 자기의 맘으로 이룩한 창조물을 높이 쌓고 소리치라구. 《해연아, 이 아버지가 기어이 조

였다.

《최근 우리는 몇마리의 쥐를 로케트에 실어 별나라

역 목구멍에 치미는 울음을 참으며 최정삼을 부둥켜안았다.

X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후 처음으로 평양과 서울에서 동시에 진행된 북과 남사이의 홀이러기 가족 및 친척회상봉으로 서울로 떠나는 주정필을 배려우리 최정삼과 김성각은 물론 한순녀와 자식들이 비행장에 나와있었다.

최정삼은 주정필의 거칠한 손을 손쉽게 잡았다.

《이자, 듣자 하니 그 지도를 두고 가려구 생각했더니?》

《실은 이 땅에 그 지주로운 분계선이 아직도 남아있기에...》

최정삼은 그의 말을 밀막았다.

《무슨 소리 할는거야. 아니, 무조건 지지고 가서 해연에게 꼭 전해주자구. 분별로 사는 우리끼기에 의세가 강요한 38°선이 없는 이 지도를 똑바로 보며 살

에 보냈소!》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부인이 그의 말을 받았다.

《그런 방법으로 쥐를 박멸한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을까요?》

아야 한단 말이야. 내가 말하고싶은건 분계선이 없는 우리 조국, 진정한 내 나라의 참모습을 가슴에 안고 우리 민족끼리 마음과 힘을 합쳐 싸워나간다면 우리 대에 꼭 통일을 이룩할수 있다는걸세!》

《형님, 종대장동지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한테야 반세기동안이나 북과 남사이에서 얼어붙었던 불신과 대결의 동토대를 한순간에 녹여버린 6.15공동선언이 있질 않소. 그러니 꼭 해연에게 그 지도를 주시우.》

마디마디 힘과 확신이 배인 그들의 말은 주정필의 가슴속에 세찬 충격을 안겨주며 새겨졌다.

《종대장동지!...》

주정필의 마음은 어느덧 밝아오는 통일의 리명과 함께 사랑하는 딸과 만나고 있었다. 바로 사랑하는 딸과 함께 살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참선리조국강도를 그리며... (끝)

본사기자